

해·외·뉴·스

아틀라스 항공, 12대의 747-8F 주문계획 입안

미국 화물 운송업체인 아틀라스 항공(Atlas Air)과 폴라 항공 화물(Polar Air Cargo)의 소유주인 아틀라스 에어 월드와이드 홀딩스(Atlas Air Worldwide Holdings)가 기종갱신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최대 12대의 보잉 747-8 화물기 계약을 완료할 준비를 갖췄다.



이 회사는 차세대 화물기를 곧 계약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기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47을 선호하는 경영진들이 747-8F를 선택하였고 12대의 항공기를 주문하는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틀라스는 더 나은 신뢰성, 항속거리, 적재능력, 연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747-8F를 선택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아틀라스의 3개월간 회계 결과에 덧붙인 진술에서 사장인 윌리엄 플린(William Flynn)은 “더 높은 신뢰성, 항속거리, 적재능력 및 연비를 갖춘 첨단 화물기로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전문화물기임대업체인 구겐하임 에비에이션 파트너스(Guggenheim Aviation Partners)도 보잉과 747-8F 및 777 화물기 거래를 검토하고 있으며, 에어버스 A330-200 화물기를 주문하는 것은 양해했다.

록히드마틴, 무인형 F-35 개발



록히드마틴이 무인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F-35 JSF 무인형을 연구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록히드마틴의 스킨크웍스(Skunk Works)에서 JSF의 유인 겸용 및 무인 전용의 두 가지 버전에 대한 개념 연구를 수행했다.

이미 2~3년 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스킨크웍스는 유인 겸용기와 무인 전용기를 모두 개념 설계했으며,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 3종류의 유인기 버전이 모두 비행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록히드마틴은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F-35 유인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충분히 모이면 그 때 연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JSF 무인기 버전이 최근 중단된 합동무인전투 항공기시스템(Joint Unmanned Combat Air Systems: J-UCAS) 프로그램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민항기대수

연말까지 1,300대에 이를 전망



중국의 신화통신사측이 금년 5월까지 중국이 2005년도 같은 기간보다 79%가 증가한 135대 이 민항기를 인수한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의 2005년 말 현재 외국제 민항기 보유대수는 968대에 달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만도 214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민간항공사들은 금년 말까지 총 1,300대의 민항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사는 중국의 항공사들이 작년에 2004년도보다 17.5%가 증가한 2억8천4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중국 항공사들의 작년 화물운송량은 총 6백33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14.6%가 증가했다.

중국 및 시콜스키사,

헬기 제작협력 양해각서 서명

중국의 항공공업 제2집단공사(AVIC II)와 미국의 시콜스키 항공기사가 소형 및 중형급 민간 헬리콥터의 개발 및 제작에 협력할 양해각서에 지난 6월 1일 서명했다. 이에 추가해 두 회사는 중국항공공업 제2집단공사 산하의 계열사인 창이항공기산업공사를 S-76 헬리콥터 기체의 두 번째 제작사로 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콜스키사와 중국 항공공업 제2집단공사는 S-92A 헬리콥터의 개발에 협력해 왔으며 창이항공기산업공사는 이 헬리콥터의 꼬리부분을 제작하고 있다.

달 탐사임무를 재개하는 러시아

과거 한때 달 탐사임무를 주도하다가 미국과의 우주경쟁서 패하고 소련의 붕괴로 로켓 달 탐사를 포기했던 러시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달 탐사임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모의설계에 들어간 러시아의 야심찬 달 탐사 임무에는 달궤도 선회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달 표면의 여러 지역에 동시에 13개의 탐측기를 전개시킬

예정이다. 이 중에는 두 개의 달 표면 침투 탐측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30여년 전 미국의 아폴로 11호 및 아폴로 12호 달 탐사선이 착륙한 곳에 착륙해 지면과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37년 전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착륙해 탐사임무를 수행하고 계측장비를 남겨놓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또한 10개의 고속 표면 침투 탐측기를 달에 보낼 계획인데 이것은 달의 기원에 관한 의문을 푸는데 도움을 줄 지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수호이 및 이탈리아, 전략적 협력협정 체결



러시아의 수호이사와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사가 마침내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러시아 리저널 제트(RRJ) 여객기와 추가적인 사업에 관한 협력의 기반을 제공해 줄 전략적인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의 항공기 제작사인 알레니아 아에르노티카사는 RRJ의 제작사인 러시아 수호이 민간항공기사의 주식의 25%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그들의 재정적 투자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알레니아사가 모색하고 있는 조정권을 갖게 되었다. 알레니아사는 또한 RRJ 개발 재원의 25% 이상을 제공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들 협력업체는 이 RRJ의 판매와 생산지원을 위한 합작사를 유럽에 설립하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업체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RRJ사업에 2억~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에어버스, 복합구조 평가기술 공동 연구

일본 정부 출현 한 조사연구소가 에어버스와 함께 탄소섬유 복합구조의 강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연구를 실시한다. 에어버스는 일본의 "미래 산업을 위한 R&D 금속 및 복합소재연구소(RIMCOF)", 국가 지원 업체, 정부 부처 및 학교 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어버스는 RIMCOF 회원사인 후지(Fuji) 중공업, 가와사키(Kawasaki) 중공업 및 미쯔비시(Mitsubishi) 중공업과 5년간의 연구를 할 것이며, "상업용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평가, 성분 테스트 및 기술 최적화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버스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항공기 복합구조의 내부나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변형이나 균열"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안정성 분석(SHM)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로파이터 72대 도입 추진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BAE 시스템스가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우디

아라비아에 납품하는 100억 파운드(190억 달러) 규모의 주계약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타이푼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거래 원칙들에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생산 계획과 관련된 책임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군 현대화를 위해 더 큰 협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 문서의 뒤를 잇는 것이다.

최근 영국 국방장관인 데스 브라운은 사우디 측 상대인 술탄 빈 압둘-아지즈 왕자와 항공기, 미사일 및 정비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협정을 맺었으며, 이어 사우디 정부가 협약을 승인했다. 아직 최종 납품 기체 대수, 무기, 최종 조립 장소 및 금융 제도 등을 해결해야 하며, 올 해 말까지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는 EADS와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Finmeccanica)가 참여한다.

한편 계약이 체결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푼의 두 번째 수출국이 되며, 현재까지 오스트리아가 18대를 주문한 바 있다. 발주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은 이미 384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는 주문에 서명을 했다.

